백용성 스님 신역대장경.한암스님 가사 문화재 등록 예고

✎ 이현용 기자 | ☎ 승인 2014.10.30 10:03

문화재청은 오늘

<백용성 역 한글본 '신역대장경'(금강경강의)>과
<한암스님 가사> 2건을 문화재 등록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.

<백용성 역 한글본 '신역대장경'(금강경강의)>은
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백용성 스님이
한문으로 된 금강경 원문을 순 한글로 번역한 해설서로,
전라북도 익산시에 있는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된
1922년 초판본입니다.

오용섭 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
"최초 국역 불경이자 후일 금강경 국역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
종교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,
민족의식을 깨우치고자 한
선각자 백용성 스님의 민족정신을 엿볼 수 있다"고 평했습니다.

아울러 월정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<한암스님 가사>는
근대 불교 중흥에 평생을 바친
근대기의 대표적인 불교 지도자인 한암 스님의 유물로
모두 3점입니다.

이 가사들은 옷감 자체가 그 당시 쉽게 구할 수 없는
고급 비단과 모본단 등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,
역사성과 시대성을 반영하고 있는 유물로서
역사적, 문화적, 종교적, 생활사 등 다방면으로
높은 가치를 평가받고 있습니다.